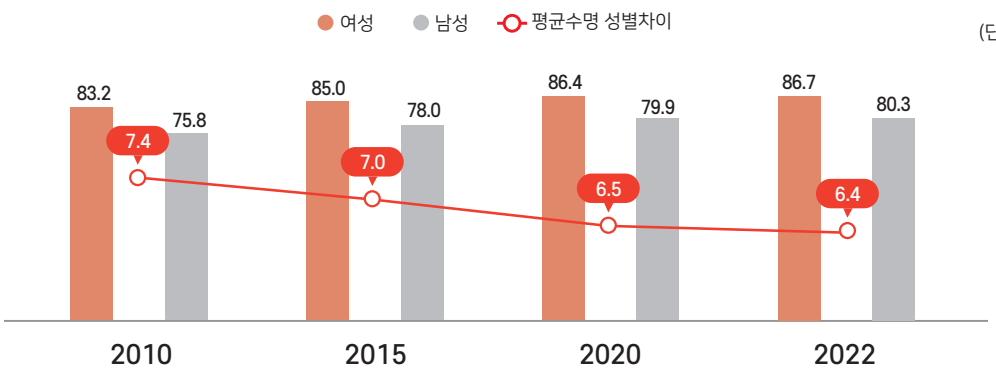
4.
보건

4. 보건

기대수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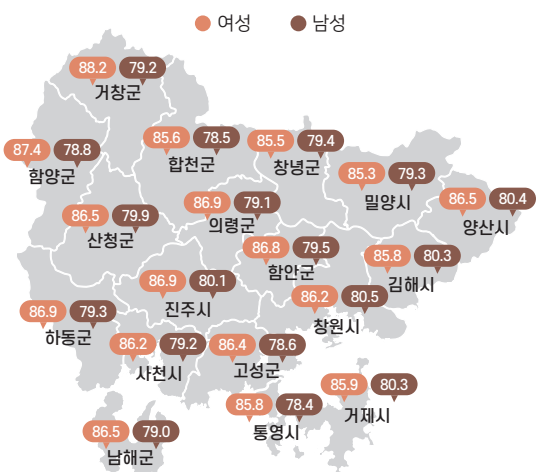
'22년 경남 기대수명은 여성 86.7세, 남성 80.3세이며, 여성은 거창군이 남성은 창원시의 기대수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

경남 기대수명(2010~2022)



자료 : 국민건강보험공단. 지역별 기대수명지표. 공공데이터포털. <표 4-1>

경남 시군별 기대수명(2022)



자료 : 국민건강보험공단. 지역별 기대수명지표. 공공데이터포털. <표 4-1>

■ 경남 기대수명은 '10년 여성 83.2세, 남성 75.8세에서 '22년 여성 86.7세, 남성 80.3세로 여성과 남성 기대수명이 증가하였으며 남성이 더 크게 증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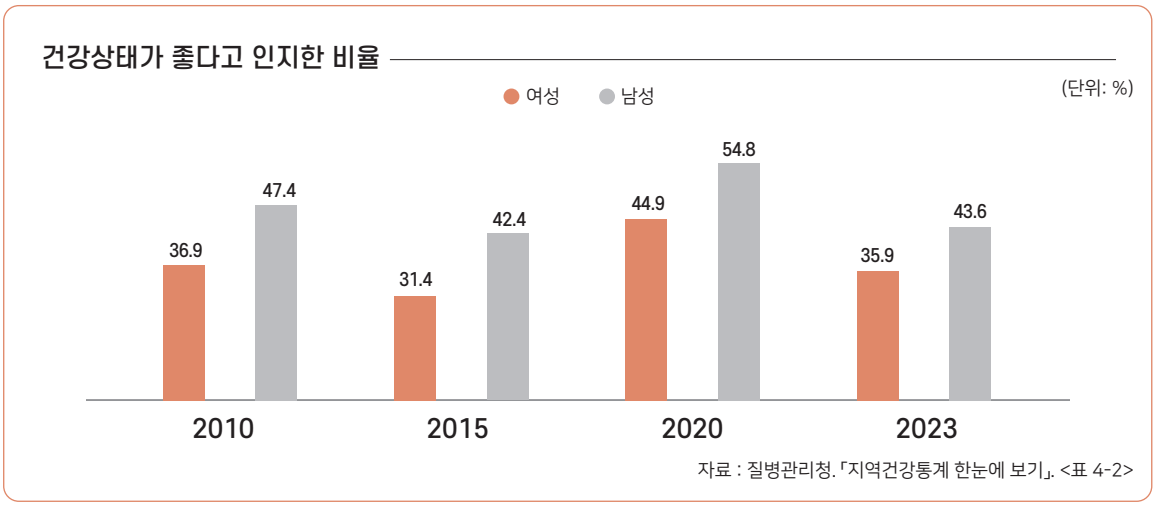
■ '22년 경남 시군 중 거창군의 여성 기대수명은 88.2세로 경남에서 가장 높았으며, 창원시는 남성의 기대수명이 80.5세로 가장 높음

■ 거창군은 여성과 남성의 기대수명의 차이가 가장 큰 지역이었으며, 김해시는 여성과 남성의 기대수명 차이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나타남

신체건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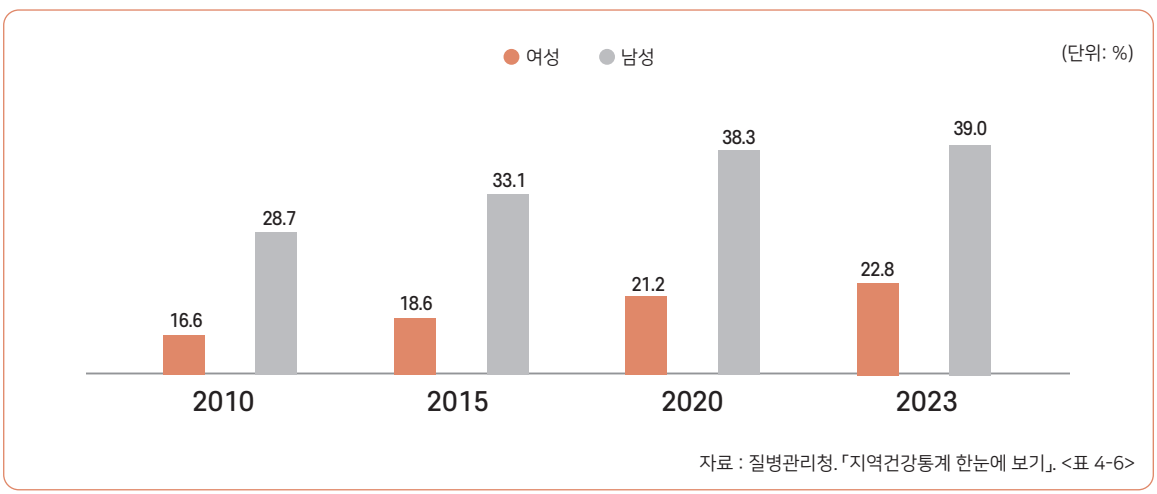
'23년 경남도민들 중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한 사람의 비율은 39.7%였으며, '10년 42.1%에 비해 소폭 하락함

개인의 건강상태 평가(2010~2023)



자료 : 질병관리청. 「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」. <표 4-2>

비만비율(2010~2023)



자료 : 질병관리청. 「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」. <표 4-6>

■ '23년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한 여성은 35.9%, 남성 43.6%로 나타나 남성의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가 여성에 비해 양호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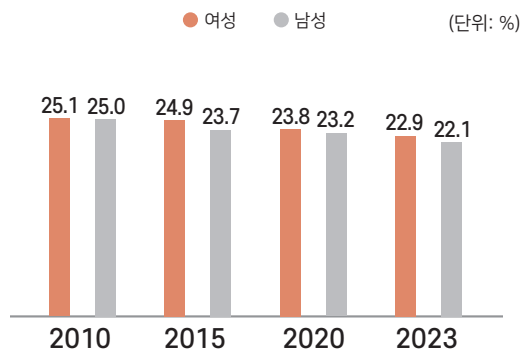
■ 반면, '23년 경남도민의 비만비율은 30.9%로 여성 22.8%, 남성 39.0%였으며, '10년 대비 '23년 여성의 비만비율은 6.2%p 상승했으나 남성은 10.3%p 상승함

4. 보건

정신건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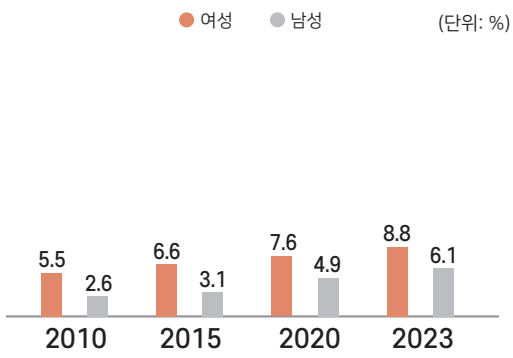
'10년 대비 '23년 경남도민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감소하였으나 우울감 경험률은 증가, '05년 대비 '22년 자살인구는 감소했으나, 남성의 자살률이 증가

스트레스 인지율(2010~2023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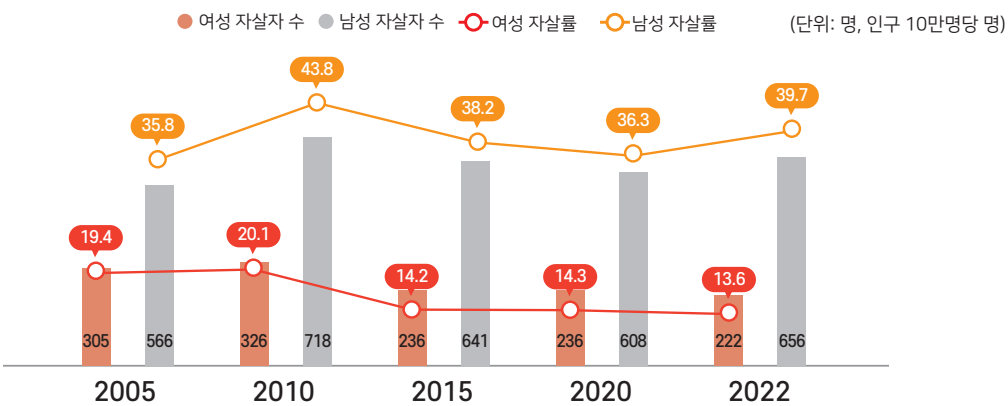
자료 : 질병관리청.「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」. <표 4-7>

우울감 경험률(2010~2023)



자료 : 질병관리청.「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」. <표 4-8>

자살 현황(2005~2022)



자료 : 통계청.「사망원인통계」. KOSIS. <표 4-16>

■ '23년 스트레스 인지율은 22.5%로, 여성 22.9% 남성 22.1%로 나타나 여성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소폭 높음

■ '23년 우울감 경험률은 여성 8.8%, 남성 6.1%였으며, '10년 대비 소폭 상승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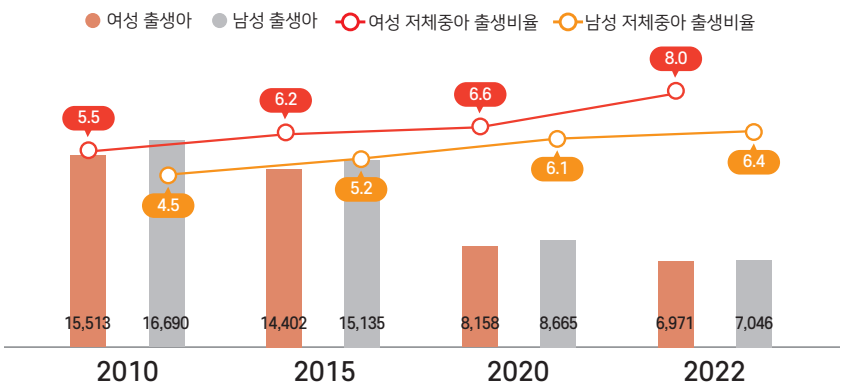
■ '22년 878명이 스스로 목숨을 마감했으며, 이중 여성은 222명, 남성은 656명으로 나타남

■ '05년 대비 '22년 자살률은 여성은 19.4명에서 13.6명으로 감소했으나 남성의 자살률은 35.8명에서 39.7명으로 증가함

영유아 및 노인 건강

'05년 대비 '22년 저체중아와 미숙아 출산율은 크게 증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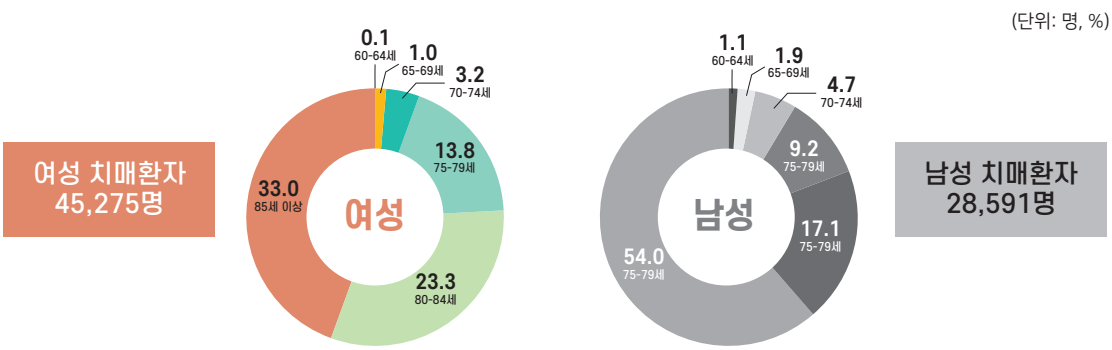
저체중아 출산율(2010~2022)



자료 : 통계청. 「인구동향조사」. <표 4-21>

노인인구 중 7.6%가 치매를 앓고 있으며, 이중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

치매 유병률(2024)



자료 : 중앙치매센터. 치매오늘은 통계시스템. <표 4-19>

■ '22년 출생아 14,017명 중 7.2%가 저체중아였으며, 여아 중 저체중아 비중은 8.0%, 남아는 6.4%임

■ '24년 8월 경남의 치매환자는 73,886명으로 노인인구 중 7.6%에 해당하였으며, 이중 여성은 45,275명 남성은 28,591명임

■ 8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여성 치매 유병률은 33.0%였으나 남성 치매 유병률은 54.0%로 매우 높은 수준